

아크릴도료 수성화로 고성장

건축용 수성화 및 자동차보수용 수요증가 ... 생산량 4만5000kℓ

국내 아크릴계도료 시장의 수성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률이 평균 20%를 웃돌고 있어 환경문제에 취약한 시장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 아크릴계도료 생산은 4만4767kℓ로 94년 3만8414kℓ에 비해 16.5% 증가했으며, 92년 2만6800kℓ를 기록한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22.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전체 도료시장의 성장률 10.1%에 비해 2배이상 높은 것으로 건축용에서의 수성화 및 공업용에서의 자동차보수용 수요가 점차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크릴계도료는 수요 4만5000여kℓ가운데 아크릴 멜라민, 아크릴 락카가 사용되는 공업용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크릴 에멀전이 사용되는 건축용은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업용은 70% 이상이 자동차보수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30% 정도가 ABS수지 등 플라스틱 용으로 사용된다.

아크릴계도료가 신차부문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열경화성수지도료인 우레탄도료에 비해 기능과 물성면에서 다소 뒤지기 때문이다.

건축용은 전체 건축내부도료 시장의 90%를 아크릴계도료가 장악할 정도로 상당한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10%만이 에폭시나 우레탄계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장업계가 유기용제로 인한 환경문제에도 불구하고 가격에서 우레탄, 에폭시계 보다 훨씬 저렴해 꾸준히 선호하고 있고 최근에는 수용성화가 급속히 진행돼 도장여건이 개선된 것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건축용 아크릴계도료의 수성화율은 40%에 이르고 있으며 2~3년안에 유용성을 따라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삼화페인트, 우진페인트를 비롯한 주요 건축용 아크릴계 생산기업들이 최근들어 본타일 코팅재료로써 Top Coat분야에 적용할 수용성 아크릴계도료를 개발해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등 가격면에서 유용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체화를 앞당기고 있다.

아크릴계도료 가격은 건축용 유용성 아크릴계도료가 고급그레이드 기준 18ℓ 당 6만6000원(저급 3만원선)으로 우레탄, 에폭시계 9만원에 비해 3만원정도 가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공업용도 18ℓ 당 4만5000원선으로 가격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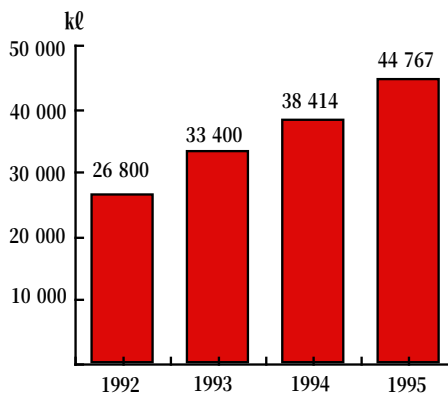
특히, 아크릴계도료는 우레탄이나 에폭시계도료에 비해 수용성화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건축용에서의 수요둔화를 환경친화성으로 커버하고 있으며 가격도 유용성과 비교해 200~500원 정도의 비슷한 가격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시장전망이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공업용에서의 수용성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급격한 수요신장은 물론 건축용과 공업용부문에 서는 최대 환경친화성 도료로 각광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아크릴계도료 시장점유현황을 보면 고려화학, 대한페인트, 건설화학 등 선발기업들이 각 15%로 전체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벽산, 우진페인트, 삼화페인트 등이 각 10%, 대화페인트를 비롯 동주산업, 현대페인트가 각 5~8%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 이들 9개사가 전체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나머지 10% 시장을 놓고 30~40개정도의 소규모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국내 아크릴계 도료 생산추이



<화학저널 1996/12/2>